



[종합] 민간 나서니 불 붙은 코세페 특수 매출 2배 수직 상승 04



Economy

코스피	2144.15 (+1.51)	코스닥	669.68 (-2.50)
금리 (연고채 3년)	1.53 (+0.01)	환율 (원-달러)	1156.90 (-0.60) (6일)

# “외국인만 숙박 받아라” 국내업체 죽이는 규제 에어비앤비만 급성장

## 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中) 공유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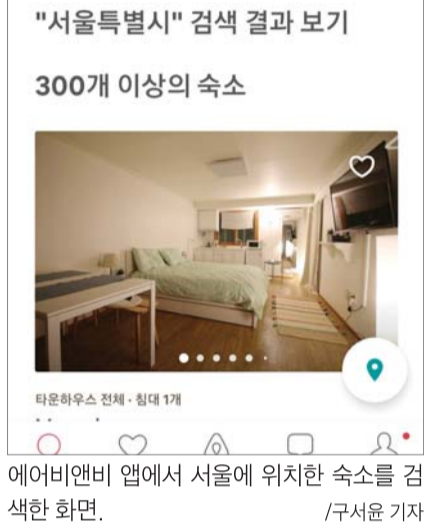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 규제에 국내 플랫폼사는 설자리 없어 규제 비웃듯 해외기업 어부지리 내국인들도 에어비앤비 이용

국내에서 숙박공유 산업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한 승차공유 산업과 달리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규제 탓에 외국 사업자의 배만 불러주고 국내 사업자는 설자리조차 없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2008년 창립해 현재 191개 국가의 10만여 도시에 진출해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호텔 같은 전문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 혹은 친근한 가정집 분위기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들의 반발과 규제 탓에 불법으로 몰린 카풀 플랫폼 우버처럼 국내에서 금지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비해 잘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은 규제에 막혀 사업 시작도 어려운 반면 에어비앤비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된 국내 환경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이다.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르면 한국의 숙



"서울특별시" 검색 결과 보기 300개 이상의 숙소

소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시켜주는 목적이 있다. 한국인은 한옥 체험이나 농어촌 민박에 한해 숙박 가능하다. 국내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 셈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도심 민박을 즐긴 내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에어비앤비 예약도 내국인 여부에 상관 없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법이 유명무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국내 플랫폼만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현재 공유 숙박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으로 세 가지인데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면에 계속)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개포·잠실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집값 안정화 위해 '핀셋' 지정

정부가 서울 강남구 6개동 등 27개동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핀셋' 지정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정부는 대상 지역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

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 1가) 등 27개 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입대사

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선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성기자 peace@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6일 오후 부산 북항 상공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행사 사전연습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인구 급감에 교원수·軍병력 감축

정부, 절대인구 감소 충격 대응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른 교육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 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남은 2가지 전략에 관한 방안들은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학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학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 대기업과 손잡은 KCGI, 막판 변수 부상

##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D데이

KCGI, 전략적 투자자 미공개 애경-현산 등과 3파전 확대

아시아나항공 인수후보 가운데 최악 체로 평가되던 KCGI가 본입찰 직전 전략적투자자(SI)와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스톤브릿지캐피탈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의 2파전이 예상되던 본입찰 경쟁이 3파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KCGI, SI확보면 3파전 확대

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FI)로만 구성돼 있던 KCGI-뱅크스트리트컨소시엄이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투자자(SI)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인수후보 가운데 인수가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이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에서 유리한 인수후보의 자리를 점한 셈이다.

현재 전략적 투자자 후보로는 호텔

신라와 SK·GS 등 대기업까지 폭넓게 거론된다.

호텔신라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면세사업과 항공업과의 시너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호텔신라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면세비중은 94.4%, 호텔 레저는 5.6%에 불과하다. 다음달 공고가 나는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수성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GS 등 대기업이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SK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만 연계해도 시너지가 크다. 우선 SK그룹의 경우 SK인천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항공유가 아시아나항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SK인천석유화학 마진이 많아지게 되고, 유가가 낮아지면 아시아나항공의 원가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SK그룹이 보유한 11번가와 연계하면 배송 등 커머스 부분의 경쟁력을 한층 키울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

공은 중국 등 해외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SK그룹은 해외 화물전문 항공사와의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86대 중 12대는 화물 항공기다. 매력적인 매출이긴 하지만,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통매각으로 인수하기엔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SK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함해 신사업 추진 사항을 검토해 왔다"며 "여객부분은 배제하고 별도의 화물 항공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I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전략적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계획이 대기업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나 시장의 이 미지를 신경 쓰는 대기업의 부담을 미리 알아 KCGI가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김수지 수습기자 yul115@